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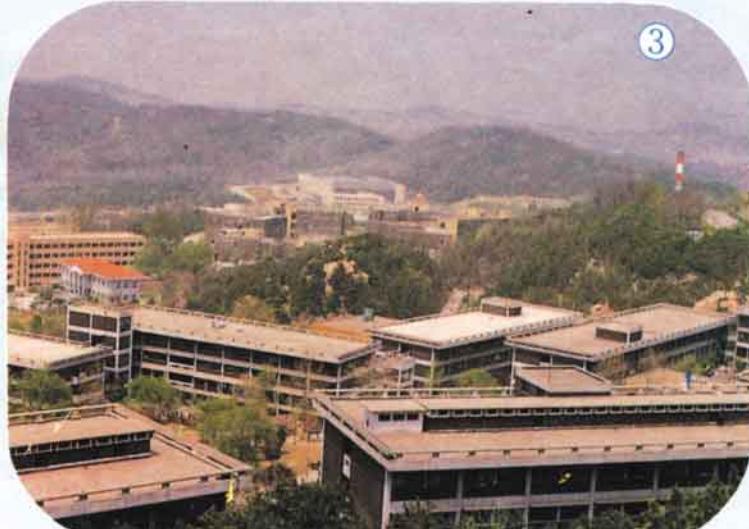
秀愚  
錘鍾  
聖主  
韓李  
人行  
印編  
人發

# 發 行 所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9-9922 ~ 5-717-9526 ~ 7

- 銀行지로番号 : 7500875
  - 對賛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 母校와 함께、同門과 함께



**生動感 넘치는 冠岳의 5月 :** 싱싱한 푸르름에 휩싸인 관악캠퍼스는 學問의 殿堂으로 점차 화복되어가고 있다. 풀 한포기에도 愛着이 가는 母校의 분위기에  
동문들은 무한한 愛情을 보내고 있다. <사진> ①大學本部 ②圖書館 앞뜰 ③教授會館에서 내려다본 캠퍼스全貌.

○ 모 우리同窓會에 제작된 소가도  
었던 것처럼 스스로들이 명장은지  
글도 전전에 전하고자 했다. 이 무렵이면 서  
로의 의기구 둘째 꽃구를 꽂고들 아래서  
天下大세를 토로했던 冠岳의 「자하연」과  
천문대·蓮建의 豐潤원과 時計塔·安養의 수  
목원 그리고 여러 기념관과 고수회관 교  
우회관의 언저리는 오늘도 그때의 우  
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보태서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하여 日  
省錄·備邊司道錄·承政院院記·十七史纂  
古今通要·鑒識要說·古文書·奎章閣의 국보  
급도서나 문화유산은 하나처럼 우리를  
의 정신과 생활면에 자랑스런 作用  
을 하고 남는 것들이었다.古今의 위  
대한 魂과 識見을 대하여 역사의 가  
르침이나 眞理를 섭렵할 수 있었다.  
바울과의 소장품은 또한 어려웠는데  
先史·渤海시대의 유물은 국내에서 유  
일한 것이다. 舊石器·신석기시대의 土  
器는 선사문화연구의 새 밤장을 제시

그래서인지 어느 哲人은 「지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대학」이  
라고 회상하였다. 우리에게도 5  
월은 유독 더 그려해 보았다. 확  
실히 그 광장은 20대 젊은들이 갑  
동이 언제나 성기로웠다. 다른 곳에  
없는 名著나 古典의 털북이로 엿  
聖賢들과 魂의 인 대화를 가질 수  
있었다. 기암석굴의 석화이나 수송  
으로부터 받은 珍玩과 인자적인 꽁  
채가 우리네 인생관 면으로 아로새  
겨지기도 하였다.

新綠의 도전이 5월원정에 생생하다  
달콤한 꽃향기에 취해 있어 보다는 밝은  
은 태양아래 나라를 펼치고 새 술이  
자라오르는 크고 작은 가지들이 푸른 행  
복이 캠피스의 암팡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가는 實相。 그런 가운데 새 생명은 일  
태되고 새 열매는 성장을 거듭한다. 남  
만에서 체계, 감상에서 의지, 환각에서 정  
체가 확인되는 이런 계절의 색감에 자  
극되면서 우리들 가슴속에 허망하고 통  
쳤던 서둘대의 懈怒시절 그것의 일부도 해  
맑은 악의 얼굴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때 우리를 향한 絶壁과 暗黑의 없  
었다. 태양을 향한 나무를 보면 上向의  
의기가 악동되었고, 피어난 잔디의  
술을 대하면 생명의 아름다운 調和와 합  
계 異性과의 사랑이 활활 그리워  
지는 인생의 술을 설강할 수 있었  
다. 젤로 흥미로운 지는 뜻노래 리  
듬에 어울려 청중의 흰 구름이라도  
우연히 와령이면 천지의 香薰 모두  
가 자기 것인듯한 매력에 젖기도 하

冠岳春秋

그 역할의 비중은 압도적이  
다. 내예인 보다 더 가중될 것이다.  
국내도 물론이 되니 와 널리 세계의 천  
지가 그대들이 진出을 더 부르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 새로운 도  
전의 멋과 유혹이 샘솟고 浩然之氣로 인  
생을 살아가고 문명 마련 또한 막 밝쳐온다.  
5월의 母校像은 15만 우리 교수들  
에게 이런 生動感을 부활시킨다면 어  
떠할까. 주위환경에 모든 生命체들이 성  
장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교내의 후학  
들 또한 여러 부문에서 발랄한 精進  
을 보이고 있다. 이런 활력, 이런 활  
동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모교의 신선  
한 생령들과 존재들은 위대한 光彩를  
발한다. 나라와 거래의 역사가 빛나고  
문명의 所產 또한 그지없이 이어질것  
이다. 5월의 서울大學校여! 영원히 푸

그 名聲 永遠히 푸르기를...

이  
모였었다.  
민주韓國이 세워진지 꽤 40년.  
그 사이의 시련과 고난을 모를  
사람은 없다. 또 그것이 훌륭하게  
극복되어 지금은 先進국의 수준으로  
접근했고 2000년대의 雄飛  
를 바리보며 나라와 사회가 민주  
화의 대전환기를 맞은게 목전의 현  
실이다.  
이런 歷史의 進路를 선도한 주  
역은 다른아닌 우리 同門들이 아  
닐까。정체·관계·경제·문화예술계  
를 가릴 것 없이 그 대세를 이  
끄는 인물은 분명히 서울大수들이  
다. 그들의 총명과 지혜와 능률은  
국운개척의 귀중한 밑바탕이였다.  
새사회 새문화 새기적 창조의 원  
천이며 온갖大事처례와 전진발전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國張承業의 雜畫과 '새그림'이 전통화의 표본이라 할 수 있고, 작가미상의 《오성루월도》와 李恒福의 《초상화》또한 조선전기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그 밖에도 전통산수화나 花鳥그림은 雲谷의 《高士望月圖》, 李在寬의 《嚴石亭》과 檀城畫等은 회암당하고도 心性的 開眼을 느끼게 하는 걸작품들이 있다.

그 그런 가운데 校友들이 위품을 높이 당해졌다. 頤川의 명재들이 총집결하여 꿈을 키우고 푸른 未來를 멀리 바라보던 서로의 모임이 그 어울림속에 발전하는 《오늘의 韓國은》 기악과 가는 것이었다. 畏이로 진짜 인간들 이 많았다. 절로 情이 들고 장래

農大同窓會(회장 沈鍾燮)는 지난 4월 9일 오후 2시 농대 대학장의 동  
에서 동문 약 1백여명  
참석한 가운데 19  
88년도 점기총회를 개  
최했다.

卷大

## 백만원규모 事業 확정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showing a group of approximately ten people gathered around a young tree sapling. They are using long-handled tools, likely hoes or rakes, to work the soil around the base of the tree. The individuals are dressed in a variety of clothing, including jackets, shirts, and trousers. The setting appears to be an outdoor area with other trees and possibly a body of water in the background.

### ◇ 기념식수 관계

# 新聞大院

# 會長 資格요건 철폐

會員加入 규정도 대폭 완

사  
화  
위  
소  
자  
에  
계  
만  
부

난달 29일 쌍용빌딩 18  
이와같은 완화조치는  
총 라운지에서 개최된 동  
대학원동창회에서 회장을 88년 정  
기총회에서 회장을 개정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려되는 것은 물론 회화적으로서도 여러 가지 볼이 좋다. 조와 문이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참여를 통해 예술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로 예상된다.

14명에 6명 全北  
은 7명에 4명  
지역구  
에 진출했다  
한편 多選별로는 金泳三

• 108 •

시  
크  
리

한편 성별로는 전국구에 이  
서만 李潤子·金長澈동등은  
작동대표로 民正黨공  
방아 의정에 진출  
했다.

# 올 첫 理事會 개초 事業計劃 予算案 승인

제사장의 청탁한 이에 동문들의 저택에 접두어 있는 옥류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울여야 한다. 대체로는 늦어도 이 말을 까지는 동창회로 우송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1-6 项目 1-6 项目 1-6 项目 1-6 项目 1-6 项目 1-6 项目

# 藥大東峰支會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 文昌基 회장

## 모임 探訪

「東崇會」는 文理科 학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東崇會」는 文理科 학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 玄永源 회장

## 세미나 열어 최신정보 흡수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 회원명부 발간, 活性化에 적극 환갑지난 元老동문들의 모임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大東峰支會』는 1975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 동문회로, 대학 동문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先親인 玄信母 박사께서는 평생을 '나무와 함께 생활하시고,' 「은사」의 아버지로 를 농화에 미친 공로가至尊에 이르렀습니다. 先親에 대해 記합니다. 懷나시는대로 말씀해주시지요.  
『先親께서「林木育種」에 한 평생을 바치게 된 것은 水原高農에 입학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수원高農의 입학은 先親의 생각과는 달리, 全의으로 祖父님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니다. 당시 先親께서는 哲學에 깊이 심취하였는데, 祖父님께서는 先親의 進路問題를

이는 지난 월 21 일 86년 11월 21일 86년 11  
지난 86년 11월 21일 86년 11  
의 世界的인 巨木 故  
香山 玄信圭博士의 별명 그대로故  
명이다.  
人은 우리나라 일목육종학 연구 및 새로운  
樹種栽培의 선구자였다.  
故人은 50여종의 새로 나무를 만들어  
나무를 나누는 지금 까고 이를 우리나라의 황금산을 부르게 하다.  
는데 이른 故人의 업적  
1 백여 그루가 심어져 벌  
에서 다시 한번號 "자랑스  
人의 故人의 漢學者로서 故人은 故  
서울大家庭은 故  
하나중에 힘썼다고 합니다.  
하면 郡都 비슷한 지  
급히 말을 빌려온 밤이었으  
지나. 日本人으로서 漢學敎  
거절하였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도 도  
세우셨다고 합니다.  
다. 집을 편이  
다.』

## 자랑스런 서울大가족

이웃 西교장 (日本人 친구인川  
고시마農 高林科 춘신)에게 의  
논한바, 水原高農에 보  
내보라는 권유에 이를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  
지요. 부모님 말씀을  
한번도 거역한 일이 없  
던 先親께서는 高農에  
입학하긴 하셨으나 哲  
學에 대해 심취한 바  
셨던 터라 초기에는 상

# 長老지낸 巨木의 집안

그렇긴 하지만 이려  
한 젊은 품지부를 죄고, 앞으로  
의 生人에 대해 휙휙  
적인 線을 긋는 일  
이었는데, 바로 日  
本의 神學者 이찌무라  
(内村鑑三) 와의 만남  
이였습니다.  
先親께서 우연히  
다가온 그중 우수한  
나의 수첩을 읽으셨을까 하니  
제목의 간여문을 접

명을  
엄제되기까지  
공적을 소개해  
주시요.  
『水原高農을  
선사 先親은 일본으로 건  
나가 九州帝大로  
임학파를 졸업하시고 또  
그大學에서 동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모교에는 45년부터 봉  
직 하셨지요.  
도교재학입니다.  
육종에 대한 연구는 계  
속하셨으나 전쟁의 참  
화로 벌거숭이가 된 山  
先親으로 하여금 일  
목육종사업에 더욱 매

—先親께서의 골적을 남기신  
는 慈堂께서의 보이지  
않는 内助가 졌으리라  
고 봅니다. 慈堂님에대  
해서도 말씀 부탁합니  
다.』

자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한편으로 회갑 때 재자들이 모아준 성금 모두를 **林學科 학생들**을 위해 장학 기금으로 출연 하시기도 했답니다.

이것도 학교에 재수를 주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행위입니다.

▲ **故 玄信圭 박사** 一家  
의 동문현황을 故人의 次男 호정鳕 교수를 중 심으로 살펴봅니다.

33년 농대전신인 수원 고등농립학교 입학과를

▲弟曜翰(燿翰)。工大3년 종퇴장으로 교신학대를 졸업하고 美프리스트신학교에 박사학위과정을 있다. 목사로 있다. 계승하고 있다.  
●文  
문 長  
복 읍 으로 在職。  
복을 故 玄信圭<sup>玄信圭</sup><sub>圭</sub>。一家의 健康과 행 기원한다.

林學界의 세계적 권위자로 추앙  
——온 집안이 同門、독실한 크리스찬

—農大에 香山文庫가  
있다더예요。



◇ 故 玄信圭박사 부부의 금혼식 때의 가족사진  
(85. 11. 15)

前 母校명예교수

故 玄信圭 박사 一家

# 얼굴을 살펴본다

새삼 母校의 이미지와 同窓會의 精持를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까. 지난 4월에 실시된 13대 總選에서 92명의 동문이 國회의원으로當選돼 同窓會는 廢事난 집안처럼 술렁이고 있다. 거기에 國務總理를 비롯 20명의 同門까지 入閣하고 있다. 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서울大人의 參與度는 명실상부하게 三府署 장악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同門들이 차지한 위치는 사뭇 중요하다 하겠다. 여기 당선된 영광의 얼굴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金鍾泌(62)	朴炳善(62)	朴容萬(64)	崔泳謹(66)	蔡汝植(62)	朴凌圭(62)	李潤子(60)	■ 보기 ■	姓名(年令)	出身大學院	所屬政黨	職位	出身區	(順位는卒業年度)
師範大學(中退) 共和·黨總裁 忠南 扶餘	49년 醫科大學卒 共和·前議員 忠南 禮山	49년 文理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城東內	48년 法科大學卒 平民·前議員 全國區	48년 文理科大學卒 民正·黨代表委員 全國區	48년 文理科大學卒 民正·共和黨의원 大邱 東區	46년 師範大學卒 民正·11대議員 全國區							
李雄熙(57)	盧仁煥(55)	金在淳(64)	鄭石謨(59)	黃哲秀(62)	申皓均(64)	金沫三(60)							
工科大學(中退) 民正·前文公長官 京畿 龍仁	54년 商科大學卒 民正·前議員 慶南 山清 咸陽	52년 商科大學卒 民正·생태社理事長 江原 鐵原 華川	52년 法科大學卒 民正·前黨事務總長 全國區	51년 師範大學卒 民正·前京畿立委 京畿 始興 果川	51년 法科大學卒 民正·12대議員 全國區	51년 文理科大學卒 民主·前黨總裁 釜山西區							
朴忠淳(54)	金龍煥(56)	金奉旭(58)	金東圭(55)	趙世衡(56)	李榮文(55)	朴佑炳(55)	徐廷和(55)						
56년 法科大學卒 共和·辯護士 忠南 大田西	56년 法科大學卒 共和·前財務長官 忠南 大川 保寧	56년 法科大學卒 平民·12대議員 全北 沃溝	56년 法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서울 江東甲	56년 文理科大學卒 平民·11대議員 서울 城東乙	56년 農科大學卒 民正·前統代議員 京畿 利川	56년 工科大學卒 民正·三陟단좌대표 江原 旌善	55년 法科大學卒 民正·前內務長官 서울 龍山						
趙昇衡(54)	趙南焜(55)	崔珏圭(54)	李應善(53)	宋斗灝(60)	金完泰(57)	李珍雨(54)	李元渉(55)						
57년 法科大學卒 平民·辯護士 全國區	57년 法科大學卒 民正·三扶土建社長 全國區	57년 文理科大學卒 共和·前商工長官 江原 江陵	57년 工科大學卒 民正·前科技處次官 江原 洪川	56년 醫科大學卒 民主·前神經外科學會長 全國區	56년 藥學大學卒 民正·12대議員 忠北 鎭川 陰城	56년 法科大學卒 民正·前議員 慶北 浦項	56년 法科大學卒 平民·黨研修院副院長 서울 江西甲						
李漢東(53)	沈明輔(53)	南載熙(54)	金瑢泰(51)	李慈憲(53)	李相回(53)	吳漢九(53)	沈晶求(56)						
58년 法科大學卒 民正·前黨事務總長 京畿 潘川 抱川	58년 法科大學卒 民正·黨事務總長 江原 寧越 平昌	58년 法科大學卒 民正·黨政策委議長 서울 江西乙	58년 法科大學卒 民正·12대議員 大邱 北區	58년 文理科大學卒 民正·12대議員 京畿 平澤	58년 文理科大學卒 民正·延大教授 全國區	57년 商科大學卒 民正·12대議員 慶北 英陽 奉化	57년 商科大學卒 民正·12대議員 仁川 南區甲						
安秉珪(50)	趙庚穆(51)	朴俊炳(54)	申五澈(50)	金宗鎬(50)	金長淑(54)	黃秉泰(53)	鄭宗澤(53)						
61년 文理科大學卒 民正·12대議員 慶南 晉陽	61년 工科大學卒 民正·黨第2事務次長 全國區	60년 文理科大學卒 民正·12대議員 忠北 報恩 沃川 永同	59년 法科大學卒 共和·辯護士 서울 道峰甲	59년 法科大學卒 民正·12대議員 忠北 條山	58년 藥學大學卒 民正·12대議員 全國區	58년 商科大學卒 民主·黨副總裁 서울 江南甲	58년 法科大學卒 民正·12대議員 忠北 清州甲						

# 第13代 總選서 92명의 同門當選…榮光의

金光一(48)	康祐赫(50)	李台燮(48)	李相得(52)	朴炳太(49)	朴進球(53)	金泰鎬(53)	姜信玉(51)
62년 法科大學卒 民主·辯護士 釜山 中區	62년 法科大學卒 民正·前政務2首席 仁川 南洞區 비서관	62년 工科大學卒 民正·前科技處長官 서울 江南乙	61년 商科大學卒 民正·國立商事社長 慶北 迎日 麻陵	61년 法科大學卒 民正·前釜山高檢검사장 慶南 南海 河東	61년 法科大學卒 民正·前慶南副知事 慶南 蔚州	61년 法科大學卒 民正·12대議員 蔚山 中	61년 法科大學卒 民主·辯護士 蔚山 蔚浦乙
李廷武(47)	金晉榮(49)	韓昇洙(51)	李相河(51)	吳有邦(47)	朴實(48)	趙贊衡(49)	朴相千(49)
64년 法科大學卒 民正·大邱百貨店副會長 大邱 南區	64년 農科大學卒 民正·赤山業 慶北 榮州 榮豐	63년 行政大學院卒 民正·豆豆教授 江原 春川	63년 法科大學卒 民正·前東亞日報副局長 全國區	63년 法科大學卒 民正·辯護士 서울 恩平甲	63년 文理科大學卒 平民·12대議員 서울 冠岳甲	62년 法科大學卒 平民·辯護士 全南 南原	62년 法科大學卒 平民·辯護士 全南 高興
李承潤(56)	朴燦鍾(49)	朴哲彥(46)	韓光玉(46)	李敏燮(49)	金文元(47)	金德龍(47)	崔雲芝(60)
65년 商科大學卒 民正·前財務長官 仁川 北區乙	65년 商科大學卒 無所屬·12대議員 서울 瑞草甲	65년 法科大學卒 民正·大統領直隸 全國區	文理科大學(中退) 平民·前議員 서울 冠岳甲	65년 文理科大學卒 民正·12대議員 江原 春城 楊口 麟蹄	65년 文理科大學卒 共和·前議員 京畿 議政府	文理科大學(中退) 民主·前委員會 서울 瑞草乙	64년 行政大學院卒 民正·12대議員 大邱 西區乙
張石和(42)	尹在基(43)	白南治(44)	鄭一永(44)	姜金植(46)	鄭大哲(44)	許京萬(50)	黃瑤周(60)
68년 法科大學卒 民主·辯護士 서울 永登浦甲	68년 法科大學卒 共和·辯護士 忠南 公州	68년 法科大學卒 民主·警察大學教授 서울 蒼原甲	68년 農科大學卒 共和·農場經營 忠南 天安	67년 商科大學卒 平民·成大教授 서울 城東甲	67년 法科大學卒 平民·前議員 서울 中區	65년 司法大學院卒 平民·院內總務 全南 順天	65년 商科大學卒 民主·12대議員 慶南 昌原
李仁濟(39)	黃性均(51)	李協(47)	李致浩(48)	吳坦(48)	辛基夏(47)	咸鍾漢(45)	金重權(48)
72년 法科大學卒 民主·大田地方法院 京畿 安養甲	71년 大學院卒 民正·醫師 慶南 三千浦 泗川	71년 法科大學卒 平民·黨報主幹 全北 裡里	70년 司法大學院卒 民正·12대議員 大邱 麻城	70년 司法大學院卒 平民·辯護士 全北 全州甲	70년 司法大學院卒 平民·12대議員 光州 東區	70년 農科大學卒 民正·12대議員 江原 原州	69년 司法大學院卒 民正·12대議員 慶北 蔚珍
當選을 祝賀합니다	李哲(40)	李哲(40)	李海曄(35)	李夢準(36)	鄭在涉(40)	崔箕善(43)	李鍾贊(51)
서울大學校 同窓會	88년 社會大學卒 無所屬·12대議員 서울 城北甲	86년 社會科學大學卒 平民·前忠清南道議員 서울 冠岳乙	75년 商科大學卒 無所屬·現代重工業 慶南 蔚山東 會長	74년 法科大學卒 民正· 서울高檢檢察 全國區	73년 法科大學卒 民主·清潭院 京畿 富川南	72년 行政大學院卒 民正·前院內總務 서울 鍾路	

當選을 祝賀합니다  
서울大學校 同窓會

- 會員一同 -







우리에서는 어서는 있다. 물에 속답에 밤삼미 아 이를 풀면 서 완된다. 꾸짖은 체 하기 훨다. 식사밥처럼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없다. 아루리로 주 하더라도 식사시간만 된다. 헉생켜서는 아니 된다. 「일이 지나치게 우선하게 해주는 것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분주하면 식사를 끊어버리지만 미루고 일부터는 것이 주 할수록 배가 해롭고 고파서야 한다는 것이다. 식사부터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새로나온 비타민群

해지면 데려온 열매가 빼기 된다. 이런 어린이들이 일어나며 혁신순회이 지 않다. 비타민D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준다. 몸나를 놓거나 물·식물성기름·시금치·알밥·쇠고기 등 많이 드물고 지방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절국 무슨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물고기며 육으로는 말이 아닌가. 그었다. 일이 많아서 아이들을 하는 어린이들이 물의 저항

하면서 茶器等 소품이 오밀조밀하였으며 南方 國家를 특히 월급의도 자기는 역사적인 葡萄 가 영향을 받았으며 葡萄 태나 그 색깔은 폴란 서의 영향을 받아서 아부하고 현대의 간각이 풍부한 것임을 알았다.  
에집트 옛 활동에서 나온 글로 만든 인물들과 그 가구들은 세밀하고 멋진 역사의 살피는 듯한 감회가 가질 수 있었다.  
1981년 여름 한 브르크를 들렸을 때 비 내리는 오후였는데 그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있었던 광장에 사느라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멀리 랜마크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이를 데리고 와서 판 전하는 것을 보았다.

수은  
세계유명한 박물관이  
나대학에 가면 우리나라의  
나라의 신라토기, 청자  
분자동이 있는데  
분류되어 나라로 표현되어  
곳도 많았지만 어느곳이  
東洋臺나 도자가 확실한데도  
리의것이 本으로 되어 있는것이  
많아서 설설한 감이들 고는  
고는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하는 분들을이나 그것을 전공하시니  
전공하시는 분들은 바로 접두하여  
접두하여 바로 접두하여 바로

요즘 가족계획이 실천되어가는 것은 좋은 일인지만 어린아이를 하나나 둘 정도 기다려보니 문제점이 있다. 아이들이 많아 살하고 먹기도 잘 되면 그게 잘 되도록 경제적으로 좋을 줄 알았다. 아버지가 되면 아들도 좋을 것이다. 아버지가 되면 아들도 좋을 것이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학교 사람의 결점은 무능다는 점이다. 서식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즐거운 가족단위의 시간인 데우리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빠를 찾는 것을 볼 때 칠에는 그들이 간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다른 제각각한 일을 하면서 그들을 보는 아버지는 아빠하고, 저녁에는 아빠와 아빠가 되어 돌아오게 하마련이다. 수험준비를 하는 아이들도 있으므로 만들고 풀방으로 들어간다.

여기 가 있음 때 도자  
기를 보고 있으면 마  
음이 퍼하여 진다. 그 모  
양 부터가 엿 고향과도  
선조들이 생활 습성을 보  
는 것 같아서 그시대에 저런 土器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를 감탄하게 되고 그 말은 歲月을 늘어나면서 오늘에  
마을을 찾게 된다.

# 갓는 금 大

# 守經節感

여 주려는 의식이  
하게 표출되는 현상을 강  
불 수 있었다.  
대영박물관의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혼탁을  
일일이 다 이야기 할  
수 없고 세계에서 제  
좋은 흔적은 있다 그  
곳에 있었던 하였다. 특  
히 자연사 박물관에 있  
는 물건들 자연에서 보석  
으로 진주와 청과 보석  
의 원석에 관한 재료  
들은 대단한 것이고 대  
아이몬 가트리 그것  
짜리까지 있으니 백카라트 그것

## -健康교실 ⑯



13

洪文和

〈37년 藥大卒〉

## 母校 명예교수

## 青磁가 갖는 季節感

金

卷之三

李朝 5백년의 哀歡지난 白磁  
陶工의 얼이 生命感으로 약동

# 李朝 5백년의 哀歎지난 白磁 陶工의 얼이 生命感으로 약동

家庭閑談

金光姬女史  
金貳煥(新大院卒)夫人

서 괴롭하니.  
어린 아이들이 기하여  
짧아 더울한 걸도 끝  
잊고 유희를 풀지  
않고  
아이들이 복잡으로  
결론하여 웃자리를 다  
풀하지도 않는다.  
남편과 나의 결혼생  
활이 어린아이를 놀라게  
될 것이다. 그만 비  
현상이라도?  
헬리티스파인의 해  
화이 담신 「여름날의  
다」 이런 시를 기억한  
날 나 놀라 고루감정에  
그걸 겨내 놓여야지  
내가 엘었던 그 아  
를다운 풀을 그리고 그걸 놀면서  
그안에 뛰어고 싶은  
발기할줄을 떠나야지.」

57년 普音大學。大韓神學大學 교수로 재직중인  
黃東敏이 존 폐터와  
페터 어스본共著를 번역  
간행한 音樂入門書  
이譯書는 음악의 실  
제적인 경향에서 벗어  
진 현대음악교육론의資  
源書로 초종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도자 및 을 악학 대한

□ 現代音樂教育의 資源

5. 비율과 비례  
6. 전개와 전개계산법

56년 3共和國이래  
法大卒。母校法  
大의 公法學 교수이며서  
法學研究所長의 補職을  
맡고 있는 金鐘문이 第  
5. 6 헌법 제정 시에野  
에서 無學國 헌법 제정 시에野  
갑시와 비판의 역  
할을 하기 위한 논문  
발표한 것을 모아  
엮은 著書。

— 金 哲 淬 著 —  
다. 다만 제5. 6 항에  
국헌법의 제정시에는 물론  
발한 헌법개정론의가 있  
었으며, 새로운 헌법을  
제정키 위한 학문적인  
논의도 활발하였다.  
著者は 우리 헌법학  
권위자로서 헌법제  
정을 위한 논의가 있  
을 때마다 신문과  
학회지를 통해  
의지와 입장을 전지하면서  
비판의 역할을  
위해 솔한 논  
문을 다하기  
문을 발표해  
왔다. 이 논문들을 모  
아 원래 「憲法改正回

65년 墓大卒。70년文  
埋められ、完璧한 작  
품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류 중장작가인 金斗문  
필을 그동안 발표했던 수  
필을 모아 「마을의 수  
필」이란 부제를 달아  
내워. 세련된 文體와 주  
제를 푸르하고 간결한 문  
장에서 소설에서가 아  
닌 작자의 意識과 평  
범하면서도 심오한 생  
활철학을 접하게 된다.  
여기로 이로서 수필은 작자의 일정이  
될 것이다. 정령의 낭비  
치부하는 들통한 독자들은  
좋은 작품 많을 읽  
어야 할 것이다. 감명을  
받을 것이다.

온은 갈통을 직가 쓴에게 독자에게는 랐었는 때로는 빨리 들어가 수필이 있는 저술을 찾는 걸통 같았을 때로는 세계를 가할 만한 것 같다. 이 수필집은 5부로 이, 부부, 추억, 세상 소망으로 구분되어 세살 살아가는 재미와 옛 날을 회상하는 추억으로 더듬으며, 앞날의 소망을 살펴보는 것으로 짜여졌다. 도서관판도 있다. - 3천원 백화점

田惠子著  
印歐語 二  
에서 1930~1944  
0년대 초까지 흘흘과 사회사를 봄시

金允漢著

□ 韓國憲法史

新刊

안내

\* 이標이 同門會  
서평면 新刊서적을 紹  
介하니라. 기 위해 마련  
했읍니다. 새로 저수한 著書를 本報 편지로  
설명 보다주시면 게재  
도록 하겠읍니다.

□ 사랑이 있는 삶을 꿈꾸며

□ 現代小說史研究



고적, 공시적인 고찰이 있다. 이著에서는 연구가 위가 너무 빨리하고 구방법에서도 피상성, 산만성, 개별성 등에 전집을 많이 지어거나, 원대에 들어와 시의 외적인 펑창이나 총의 파괴 및 삶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있으면서 학원으로 시는 도시대로 脫都城이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현시점에서 불과 都會間의 상호 기관 기지 관계를 바라보면, 서의 對比研究가 디스럽게 생활되기도 한다. 대다. 对象小説이 있다. 中·短篇小説으로 연구대상으로 1940년 초반까지의 작품을 취급하고 있다. <새문학> 제4권 제8호(1940)

印歐語 비교언어학

1

文理大 言語學科 출신으로 이 교수로 재직중인 韓國人 朴正燮이 語學을 위하여 韓國人 학제의 研究를 수진한 論文을 제출한 바 있다. 그의 주제는 『近東 및 북인도의 지역에 전파되었는 語群으로서 고대印度와 雅言의 문화권에 속하는 모든 언어가 여기에 속하며 인도계 3만 語를 끌어들여 기도 한다. 인구는 3천년대

金允漢著  
『金允漢著』

同窓會費 납부하여 母校支援과 奬學사업에 寄與합시다

般若

年會費 내주신분

(2월 28일 ~ 4월 23일 까지)

# ◇家政大學

# ◇ 經營大學

◆ 自然大學

임백운(86)  
정재호(85)  
오상설(85)  
김용창(86)  
류건주(86)  
방근석(86)  
박종희(85)  
中熙(86)  
오영환(86)

## ◇人文大學

朴喜昌	55	徐富甲	51	李慶鎔	57	趙趙煥熙	40
金炯宇	49	趙俊基	58	김종대	58	박관식	57
김상기	55	김기철	78	강창호	57	이홍근	64
최정락	68	배기환	49	林鳳鎮	40	宋寬律	67
백남조	75	金元洙	52	朴正修	69	金英植	57
김영복	59	김재진	63	장유진	61	김기철	78
高在君	74	김경복	73	朴順顯	60	김기철	78
邊廷柱	64	朴基允	60	朴聖錫	57	朴基允	60
朴賀浩	43	朴基英	31	朴正修	69	朴基英	31

안화영	54	문양우	53
宋宇贊	53	신창우	57
洪致模	56	장인숙	56
金萬玉	63	咸洪根	51
李仁基	66	鄭敏植	51
金鎮植	64	洪性勳	61
張華淳	59	박기안	72
최서영	58	이태일	68
전단진	58	이재근	71
林秉哲	53	유병길	72
朴日圭	53	하일민	62
유진형	56	부정애	70
金化中	58	박창성	57
南廣祐	50	이상식	58
金有鏞	53	변상식	73
元仁奇	70	김재현	57
李東熙	58	한우중	51
李榮九	54	한우중	65
전영호	65	崔成圭	64

□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습니다. 業學校을 비롯한 母校들기에 많은 財源이 소요되고 있는 同懇會에서는 가급적이면 各會員들께서 앞당겨 會費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母校 발전과 동창회의活性화에 도움을 주시는 뜻으로 여기시고 되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 박정우  
전학선  
⑥(60)  
金根培  
⑧(83)  
▲ 이규성  
안병철  
⑦(70)  
▲ 정선화  
⑨(86)

부구	김암	尹永培	楊兒兄	주경희	徐基泰	崔載勳	박일재	서용은	高明允	成孟文	田秀一	이운식
(74)	(64)	(61)	(54)	(76)	(84)	(64)	(52)	(59)	(59)	(82)	(62)	(56)
주민회	박경희	김금환	김복환	정경숙	이성준	이홍우	김진우	조화연	이인재	오영진	조춘	金東載
(57)	(59)	(46)	(72)	(41)	(68)	(59)	(56)	(55)	(77)	(69)	(84)	(63)
회	화	재	경	숙	준	우	진	연	재	영	춘	大學

•一般會費	1만원
•理事會費	5만원
•常任理事	10만원
(회원 3천명 이상)	20만원
•監事	30만원
•副會長	50만원
•會長	1백만원

◆ 金正根 59 ◇ 獸醫科大學  
▲ 전은진 64

최유식	(59)	최유식	(59)
朴敬浩	(61)	박경호	(76)
이정희	(60)	이정희	(73)
유성희	(60)	유성희	(60)
이용길	(60)	이시영	(60)
金在旭	(50)	金仲權	(63)
최근출	(59)	李均	(44)
손호태	(61)	김대현	(64)
이원재	(57)	장신우	(64)
김해석	(57)	강현	(56)
고경운	(66)	이상우	(70)
李相燦	(66)	노재희	(55)
한예택	(67)	유진희	(63)
오우근	(58)	김수길	(60)
김학현	(72)	김호준	(70)
이정희	(72)	황구간	(77)
이선근	(77)	채수연	(63)
김경민	(70)	윤경숙	(47)

◇	백나호	이자한	김희태
●	윤양석	이연희	신철수
▲	김은숙	임우빈	김철우
▲	李貴子	김금주	尹美容
▲	임은애	서계진	이준성
▲	김민숙	김인숙	이준성
▲	박자숙	이준성	이준성
▲	구본희	장창환	한민기
▲	김민숙	장정구	이정희
▲	이동근	이정희	조연희
▲	이동근	김제창	김제창
▲	장정구	장정구	장정구
▲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洪希政	李泰實	李泰實	洪希政
홍홍봉	유원하	유원하	홍홍봉
신동희	이춘호	이춘호	신동희
임명자	김명자	김명자	임명자
박경서	정명희	정명희	박경서
빈태욱	구기서	구기서	빈태욱
정명희	김명자	김명자	정명희
유안석	이준호	이준호	유안석
49	60	61	49
서양숙	신현	신현	서양숙
73	72	72	73

▲ 이병우(84)	▲ 백낙청(59)	▲ 서교일(84)
▲ 이재현(61)	▲ 손병선(84)	▲ 이재현(61)
▲ 주영재(39)	▲ 황수근(56)	▲ 이연(63)
▲ 고재환(57)	▲ 金潤洙(64)	▲ 이연(63)
▲ 조경환(58)	▲ 솔이상(67)	▲ 이정환(49)
▲ 유흥구(72)	▲ 한홍모(61)	▲ 유흥구(72)
▲ 박용섭(56)	▲ 남상의(61)	▲ 신기식(83)
▲ 이현식(63)	▲ 申恩烈(63)	▲ 이현식(63)

◇大學院

▲	류남(74)	▲	김세동(67)	▲	한상숙(64)	▲	최금수(62)	▲	김기수(58)	▲	이정태(57)	▲	김희준(55)	▲	金基錦(61)	▲	안정(66)	▲	윤현우(67)	▲	박은기(79)
---	--------	---	---------	---	---------	---	---------	---	---------	---	---------	---	---------	---	---------	---	--------	---	---------	---	---------

# ◇ 명지 실업전문대학

## 職場支部

△ 未詳	◇ 環境大學院	△ 최상철(64) △ 이광철(70) △ 박대석(72) △ 이용만(66) △ 유종해(62) △ 김기남(65) △ 신주호(68) △ 진상훈(66)
△ 안현수 (68)	△ 김기남 (65)	△ 유형식 (69) △ 윤기선 (51) △ 김대성 (67) △ 김민기 (67) △ 김정호 (64) △ 김재현 (67) △ 진영훈 (79)
△ 차혜영 (67)	△ 이준우 (53)	△ 윤기선 (51) △ 김민기 (67) △ 김정호 (64) △ 김재현 (67) △ 진영훈 (79)
△ 신상호 (68)	△ 최세종 (69)	△ 최상철(64) △ 이광철(70) △ 박대석(72) △ 이용만(66) △ 유종해(62) △ 김기남(65) △ 신주호(68) △ 진상훈(66)
△ 김계태 (73)	△ 김정호 (64)	

# ◇保健大學院

會費를 내실 때  
에는 姓名·出身  
大學·卒業年度를  
정확히 記載해 주  
시기 바랍니다.

◇명지설연전문대학  
23  
만화

23

윤문환 (54) 정진 (68) 안병근 (67) 차혜영 (67) 신상호 (5)  
 ▲▲▲▲▲朴桂洙 (79) 노현상 (80) 김제태 (80) 이인자 (80)

# ◆ 環境大學院

◇行政大學院  
김우봉(73) ▲安性均(73)  
閔庚瑞(65) ▲김유원(74)  
金敬男(78) ▲바종만(75)

## ◆保健大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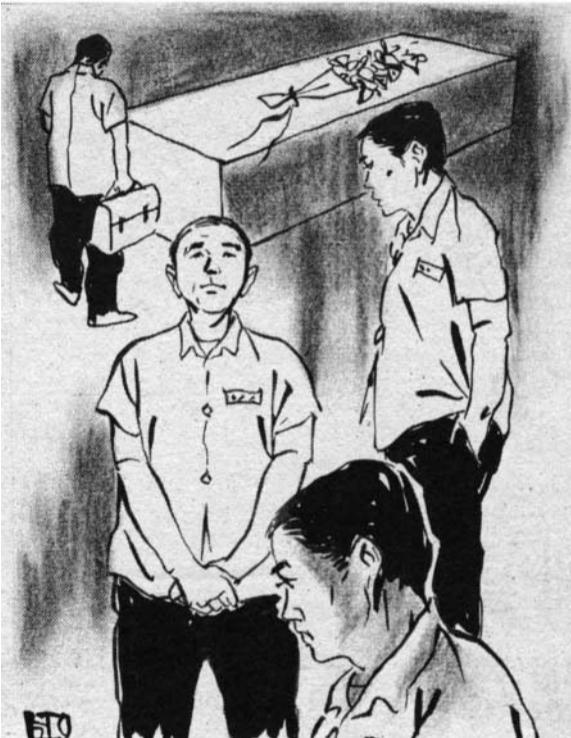


金國泰

▲ 38年 京畿 葉城生 ▲ 63年  
師大卒 ▲ 「現代文學」 편집장  
역임 ▲ 現代文學賞·月灘文學  
賞受賞 ▲ 作品集「暢享의  
世界」「覺醒年華」「우리고설의  
傳說」「귀는 출처 멀리 있다」  
▲ 秋溪藝術學校 교수

우리 처럼 교실의 교장이 죽임을 당할 그 으로써 우리들의 전율 나가자 우리는 한동안 한 예술을 되어 하루 하루 를 보내고 있었다. 우리들의 가슴이 저마다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반장 개가 교실을 휘저으며 일구십은 행해로 보아서는 개의 죽음은 우리들을 후련하게 해 주고도 날들이 있었다. 그에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마다 그에게 모처럼 스러움을 담았던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들의 가흔은 디어린 터여서 남의 죽음을 고소해 주기 수가 없었다. 우리들 조상 대대로 내려온 피물로 땅으로 하여 우린 애들이 밤장 그 죽음을 놓고 놓았던 것인지도 모를 알았다. 아무튼 고서를 듣는 명한 예술을 보았고 나를 보았던 중이 하우리 리들이었다.

# 우리교실의 伝說



하노는 말조차 입에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뿐인 것만이었다. 우리들은 말조차 입에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말조차 입에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말조차 입에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었다. 우리들은 그럴때마다  
둘째 짹찌 별린 일들을 나누고  
다. 결국 우리들은 다리에서  
불거리며 우리 교실을 떠나  
대로 들락거리는 교장선생님  
님에게 중도를 던져  
리를 보낸는 것이 고작이  
였다. 우리는 물론 애교하고  
장선생님에게 죄송스럽게  
후회장을 저자들의 가슴에  
담으면서 어깨들을 흔들면서  
별구내리고는 하는 것 같았던  
다.

『그는 그것이 누구의식이  
행이지 않도록 하 알고 있  
다아!』  
한 아이가 노답하지  
서 하루를 또 자습이라

우리 교설의 구석구석에 걸친  
감없이 밝혀놓고 있었던  
였다.  
『아하이!』  
노구치가 구석을 살피면서  
려놓는 탐정을 떠났다.  
우리를 모두가 입술에 물어  
금씩 풀썩거렸다. 각자 이모  
들을 빼놓지 않았다.  
우리들의 입술에 물방울처럼  
럼 대열로는 것이었다.  
우리 특진에게 생겼다는  
토록 심에 유념했던 적이  
으며 교설의 어두운 구석을 헤아  
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게 되는 것이다. 물론  
리들의 일시불란한 탄성이 그리하여 덕연한 것일 줄  
밖에 알겠단다.

인자해의 목소리였다.  
“하나도 알아들릴 수  
가지 않다. 얘기를 훨씬 더 잘  
두고 말해줄게. 좀 말해  
수 있었겠지?”  
여자애의 목소리였다.  
“말할 때 입술을 채운  
거리는 것 이었는데 말을  
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말을  
열어 말을 벌들이거나  
여겼다. 개는  
포시 속을 차해  
었다.  
눈금을 통해 살금살금  
리라는 것으로 보아  
기 말에 대한 우리들의  
우리를 들은 척이나  
우리를 모두  
더 거칠었다.  
개는 끄덕여서는  
더럽다. 다른  
말기는 고개를  
했어도

이였다.  
『나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을 마치 듣고 있는 듯이 나는 확실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게 모두가 재미를 찾았다는 걸 알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런 아버지가 되라고 할 때 나는 출처 허 서글픔을 그 할 줄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교실은 랜동안 담임선생님이 암울한 가운데서도 비록 어려운 학제로 저쳐왔지만 바빠로 모범 선교실로 성큼 발돋움을 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이는 우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齒大 移転·新築 노란 심각

는 도교의 낙성대축 부  
지로 이전시켜는 웅직  
임에 대해 치대 교수 및 나섬  
학생들이 저부하고 표면화된 것으로 전  
문제는 점차 확대될 전  
망이다. 수) 측에서는 「치과 진료 신축사 업은 병원자체  
부 (병원장· 학교법인  
부지로 문제는 부지 확장된 살태도 아니기 때  
부지 확보가 어려워

인 테니스장을 교환한다.  
는 조건으로 발전장기 안에  
명시함을 하여도 불구하고 고부  
지 확보 문제를 평화적으로  
변경하지는 않기 시키는  
의도는 부당한 것이라  
며 “이는 전체 서대내차  
국의 발전에도 장애가 되  
는 것”이라 밝히고 또  
제시된 조성

在錫山보를  
세의 기호 2  
로 구하고  
예상을  
유례없는  
이번 선자는  
전보다 높은 63.9  
여울을 보였으나  
파란수 이상의  
얻지는 못했다.

# 利雅大學 2019年畢業典禮

세계 30개국 9000여개 기관에  
제공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산망인 B.I.T.  
NET에 모교 전자계산소 (소장 李基燦) 가 지난 2월 2주차 2백 28회째로  
가입하였다. 이 전산망에 참여하는 기관은 세계  
계유수대학과 철원군민구청, 각종 학술  
에서 나온 교수 및 학생들이 4월 6일부터  
6일로부터 모교 대학원생과 전자계산  
산소에서 교수 및 학부생들이 자유로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B.I.T. (Beca-  
use it's time NET) work [프로그램] [이하简称]  
한 1981년 미리온 회사  
혹시 런던대학과 뉴욕대학과 같은  
영국대학과 유럽대학과 같은  
연합대학으로서는 물론이고  
한국대학으로서는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  
구소가 해외으로 가입되어  
어있는데 그 중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대학간 정보망이다.  
모교는 미국 대학연합  
에 맞는 대학연합 개발  
방법에 목표로 하니  
NICON 계약의 일환으로  
보 지난해 IBM 309

0 대체시스템을  
올해 2월 일본 동경에  
理科大와 협력하는 국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I.T.NET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전산망의 ARP  
NET(인터넷) 및 전자우편  
MAILNET(EDU  
COM 전자전산망) 등  
여개의 세계주요 전산  
망과 연결되어 있어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자들이 국가와 세계  
를 넘나들며 활동할 수

이전·신체  
제복을  
추진  
할수  
없는  
상태”  
라며  
“차대가  
이전될  
부지는  
학교부지  
로서  
문제가  
아니며  
의  
대 및  
차대장의  
권한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사  
안 되는  
경우 총장이 직권  
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  
어 서  
로 의견차를 좁히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것은 병

# 學制 개편등 요구 특별위원회, 서명운동 전개

尖端情報의 신속한 이용 가능

# 考古學 조사단 漢沙里 유적 발굴

朱木 フジノシ  
趙忠貞、植木田 맞아  
신화열을 맞이하여 趙  
元惠宗을 지난 4월에  
선조 10년에 죄목관과 총  
전공관에 주목 한 그  
부수 했다.  
한 그루를 기

▲ 기초공사의 전망  
● 퍼스 환경과 학제적 협력  
한국기독교대한성결대학교  
연간 기능 보장금  
학의 유구사 활동  
다. 이와 관련 수의학  
지난 27일 교육부  
갖고 「설립대학 교육부  
정부에 제출된다.

# 學制 개편등 요구 특별위원회, 서명운동 전개

회록의 인은 천 3 으는 백건백사 70학 졌록 8 결

한국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1952년에 창간되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53回  
金枝  
이매

獸醫大학생회

2만 8천 여덟

다발족증에 대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택했다.  
1월에 치료로 진짜 페스에 수의대는  
되었고 4년제 현재에 76년 이수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 **기초공사의 전진**  
화성과  
퍼스 환경과  
한국전력 회·구  
업자 기능 보장 등  
화학의 요구 사항을  
다.  
이와 관련 수의대  
지구를 27일 교육부  
갖고 「서울대학교 박  
제학」에 예정된  
..화재 개편, 2단계  
이전을 병행 추진